

4. 마을의 특징

1) 내성행상불망비(乃城行商祿不忘碑)

울진 내성행상불망비는 조선 말기 울진과 봉화를 오가며 어류·소금·해조류 등을 쪽지개에 지고 가서 곡식·의류·약품·잡화 등과 물물 교환하며 상행위를 하던 상인들이 그들의 상거래에 많은 도움을 준, 당시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살고 있던 봉화 사람 접장 정한조와 안동 사람 반수 권재만의 공을 잊지 못하여 그 은공을 기리고자 세운 불망비이다. 북면 두천리 지역의 주민들은 선질꾼비라고도 한다. 권재만 비의 크기는 높이 94.5cm, 폭 24.8cm, 두께 2.1cm이며, 무게는 29.4kg이다. 정한조 비의 크기는 높이 93.3cm, 폭 23.1cm, 두께 2.2cm이며, 무게는 26.4kg이다. 울진 내성행상불망비는 비신(碑身)과 비수(碑首)를 하나로 주조하였으며, 비수의 문양과 비신의 글씨는 앞면에만 양각으로 주조하였다. 비신 가운데에는 세로로 “내성행상접장정한조불망비(乃城行商接長鄭漢祿不忘碑)”와 “내성행상반수권재만불망비(乃城行商班首權在萬不忘碑)”라는 명문이 각각 양각되어 있다. 1995년 6월 30일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10호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에 지금의 보호각을 세우고 2006년에 보존처리를 하였다.

2) 성황당(城隍堂)

성황당이 2개소가 있는데, 마을 안에 있는 성황당은 수령 수백 년이 되는 팽나무와 당집으로 되어 있고, 물 건넌마을에 있는 성황당은 수령 500년이 넘는 굴참나무와 당집으로 되어 있다.

제15절 두천2리(斗川二里)[속명 : 안말래]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형제봉(兄弟峯)이 솟아있고, 서쪽은 안일왕성(安逸王城), 남쪽은 악구산(岳丘山), 북쪽은 세덕곡산(細德谷山)이 있으며, 안말래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깥말래를 거쳐 울진 남대천으로 흐르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3년에 건립되어 현재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 사기점(沙器店)

정선 전씨가 처음 개척했다고 전해지며, 과거 사기그릇을 만들던 곳이다. 현재 4가구가 거주하며 2곳의 성황목이 있다.

2) 안말래(內斗川)

600년경에 심씨(沈氏)가 이 마을을 개척하여 말래(馬來)라 하였다. 마을은 서낭골과 밤나무골로 나뉜다. 마을 형국은 ‘부채살 형국’으로 여기며 주민들은 ‘큰 인물은 나지 않아도 먹고 살기에는 딱 좋은 곳’으로 여긴다. 산림청이 마을 서북쪽의 바른골 일대에 산불 진화용 소규모 댐을 조성했다. 마을 앞의 건넛들을 지나 금강송면 보부내마을로 이어진다.

3) 장평(長坪)

10여 가구로 형성된 마을로 과거 동해안과 영남내륙을 잇는 십이령길을 통한 선질군들의 왕래가 활발했을 당시 활기를 띠던 주막촌이다. ‘들이 길다’ 하여 장평(長坪)이라고 불렀다 전한다.

3. 가구 분포

총 30세대가 거주하며 정선 전씨(旌善全氏), 경주 최씨(慶州崔氏), 영해 박씨(寧海朴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수백 년이 된 노송(老松)과 굴참나무가 당집과 함께 있는 성황당이 2개소 있다.

제16절 부구1리(富邱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매봉산(鷹峰山) 지맥(地脈)이 동해안에 접하여 동재곶(東峴串)을 이루고, 서쪽은